



한울림 교회

방송 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11시

교회소식

성 찬 식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목사

다같이

설교자

신앙고백 /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니 (찬228)

결단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나는 예배자입니다/소원

주님께 감사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찬 633)

사도행전 9:8-19

“감사찬송”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참 아름다워라 (찬478)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일 년간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4. 이번 추수감사주일 특별감사헌금은 전액을 예배당 건축헌금으로 전용합니다. 필요한 분은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건축헌금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 오늘 예배 후에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있습니다.
6. 다음 주일(11/29)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7. 2021년 주소록 제작을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8. Covid-19 감염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일예배를 현장예배와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배당 입장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연락되신 분들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문의-양명철 718-772-5290)
9.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며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 일깨우는 범사에 감사

지난 주일 민영미 선교사의 사고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민영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접하며 많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함부로 의미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다니...,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적응해서 잘 할만한 할 때인데... 우리의 황망함은 대체로 이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영미 선교사를 생각하며 Ruby Kendrick(1883-1908) 선교사를 떠올렸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의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천 개의 목숨의 있다면 모두 한국에 주고 싶다는 그녀는 25세 나이에, 한국에 온지 1년도 되지 않아, 맹장염으로 죽어가며 그렇게 한국에 물어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벘후 3:8)” 영원 속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일 것입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짧은 시간을 살며 선교사로 헌신한 민영미 선교사의 삶은 영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황망한 소식을 접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1,116,535